

이승만 대통령 폄하, 대한민국 건국과 정체성 부정하는 것

김용옥 망언 여과없이 방송한 KBS 강력 규탄, “공영방송 본분 망각한 것”



도을 김용옥의 망언과 이를 여과없이 방송한 공영방송 KBS를 규탄하는 집회가 향군 주관으로 4월16일 여의도 KBS 본관과 전국 10개 지방총국 앞에서 일제히 열렸다. 사진은 규탄집회를 마치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는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회장단과 회원들

향군, KBS 본관과 전국 10개 지방총국 앞서 일제히 규탄집회

도을 김용옥의 망언과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공영방송 KBS를 규탄하는 집회가 향군 주관으로 4월16일 여의도 KBS 본관과 전국 10개 지방총국 앞에서 일제히 열렸다. 향군의 이날 규탄대회는 여의도 본관 앞 1,500명, 10개시도 지방총국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개최됐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KBS를 강력 규탄하고 국민방송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KBS 1TV는 지난 3월16일 ‘도을 아인 오방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 나선 도을 김용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로 지칭하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남북분단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등 망언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김진호 회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KBS의 인식에 대해 강

력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우국충정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힌 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좌익세력의 반대를 물리치고 세운 단독정부가 오늘날 세계인의 주목 받고 있는 세계 12대 경제대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김용옥의 주장처럼 찬탁이 아닌 반탁으로 38선 이남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 경찰, UN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방의

의무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참전용사와 향군회원,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폄하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지난 3월25일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KBS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인 KBS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자유 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다. 한편 향군은 4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 향군 회원 5,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KBS 도을 방송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냉철한 심의를 통해 KBS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 전개	2면
제72차 정기전국 총회	3면

향군, 동해안 산불진화 및 이재민 구호활동

여성회, 기동대 등 참여 자원봉사 적극 나서

향군은 4월5일부터 동해안 일대 산불진화 현장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인력과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 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강원도 고성군 향군과 속초시 향군은 기동대 각각 30여명을 동원, 산불정리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펼쳤으며 고성군 향군 여성회원들은 고성 아야진초등학교에 마

련된 긴급대피소를 찾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긴급 수송된 응급구호품 1,600세트와 대피소 칸막이, 침구류, 의류, 생필품 등 4만 5천여 점의 구호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구호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향군과 재해구호협회는 현장에

서 구호활동과 함께 고성과 속초에서 이재민들의 세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세탁차도 운영했다. 김진호 회장은 4일 고성, 속초 등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상황을 보고받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이재민들의 구호활동에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향군이 앞장서야 한다”며 즉각 기동대 출동시켜 산불진화지원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재민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향군회원들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 전개한다

“법안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 결연한 각오

향군은 4월17일부터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 폐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22일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자 이 법은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2015년 법 개정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중단·폐지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

처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여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봉쇄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국가보훈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향군의 모든 수익사업의 승인은 물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3년마다 재심의 하겠다는 내용과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과 신설,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및 양벌규정까지 새로 포함시켰다.

이번 향군법 개정안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향군이 순수한 보훈단체가 아님에도 ‘보훈단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범주에 향군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향군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으로 비영

리 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조치는 국가 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향군은 향군법에 의거 국가로부터 보호금,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지만, 현실은 향군의 수익사업 수익금이 보호성금으로 정부에 입금되었다가 되돌아 나오는 구조이다.

따라서 ‘순수한 세수에 의한 국가예산의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타 보훈단체와 달리 수익계약 체결권 등의 혜택이 없는 향군에 대해 감독권 강화의 명분으로 타 보훈단체와 동일 차원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의 원칙과 체계 정당성원리에 위반되는 조치이다.

한 예로 향군과 설립목적 및 법인격 등이 유사한 재향경우회의 경우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규제 사항 없이 자율

적으로 회무를 운영토록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 투자 공공기관도 그러하다. 그런데 유독 향군에 대해서만 통제 일변의 규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물론 감독관청의 행정재량권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향군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보훈처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통제와 직권 남용적 입법 추진을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이며 입법폐기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 전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4월16일 총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인 서명 운동 취지문

향군 무력화하는 향군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향군은 1952년 2월 1일 창설된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 국가안보제2보루로서 국가안보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향군법에 의거 설립되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용되는 예비역 군인들의 모임인 민간단체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2015.2.3. 제16차 회법개정을 통하여 수익사업 전반에 대해 통제를 원비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법령개정을 통해 향군의 수익사업을 고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또다시 2019.2.22.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으로 향군 목적사업의 근간이 되는 수익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여 통제하겠다는 회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향군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 남용은 입법 기술상 불필요한 수익사업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확대, 수익사업실태조사 도입 등과 벌칙 규정 신설 등은 재향군인회법을 재향군인회 규제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궁극적으로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향군법 개정안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향군이 순수한 보훈단체가 아님에도 ‘보훈단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범주에 향군을 포함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향군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私法人)으로 비영리 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조치는 국가 감독권의 범위와 한계

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향군은 향군법에 의거 국가로부터 보호금,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지만, 현실은 향군의 수익사업 수익금이 보호성금으로 정부에 입금되었다가 되돌아 나오는 구조이다. 따라서 ‘순수한 세수에 의한 국가예산의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타 보훈단체와 달리 수익계약 체결권 등의 혜택이 없는 향군에 대해 감독권 강화의 명분으로 타 보훈단체와 동일 차원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의 원칙과 체계정당성원리에 위반되는 조치이다.

■한 예로 향군과 설립목적 및 법인격 등이 유사한 재향경우회의 경우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규제 사항 없이 자율적으로 회무를 운영토록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 투자 공공기관도 그러하다. 그런데 유독 향군에 대해서만 통제 일변의 규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물론 감독관청의 행정재량권을 넘어서는 남용이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인 향군 임원 직무정지 및 해임안과 수익사업 관련 회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향군을 성격이 다른 보훈단체와 동일하게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시각의 산물이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과 자구노력을 통해 총 매진하고 있는 향군의 노력을 폄하하고, 민간 안보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 조치로 향군에 대한 중대위협인 바 1천만 향군은 사활을 걸고 모든 법안 폐기를 목표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⑧

‘100만 서명운동’ 통해 향군회법 개정 저지해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4월17일부터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향군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추진한 것은 향군 역사상 이번이 네 번째다.

맨 처음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000만 서명운동이고 두 번째는 2006년 9월부터 4년 동안 5차례 걸쳐 추진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전 시작전권 전환) 1000만명 서명운동이며 세 번째가 2016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북핵 폐기 100만인 서명운동이다.

안보 정체성 확립과 의지표현으로 실시해 온 향군의 서명운동

과거의 서명운동을 살펴보면 한 번도 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요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과 방법도 각급 회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온라인 서명도 병행했다. 또 향군 회원들로 편성해서 거리로 나가 가두서명을 받기도하고 현수막 설치, 대언론 기자회견, 기고문 게재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과거에 추진했던 서명운동은 향군이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향군차원의 명분이 뚜렷하고 정당한 안보대응 활동 차원 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 향군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22일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 한다”는 이유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향군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하는 향군회법 개정, 생존 걸린 절실한 문제

국가보훈처는 이미 2015년 법 개정 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중단·폐지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여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봉쇄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국가보훈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향군의 모든 수익사업의 승인은 물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3년마다 재심의 하겠다는 내용과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과 신설,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및 양벌규정까지 새로 포함시켰다. 향군이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私法人)인데도 비영리 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조치는 국가 감독권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 향군과 설립목적 및 법인격 등이 유사한 재향경우회 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규제약법이다. 경위회법에도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규제 사항 없이 자율적으로 회무를 운영토록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 투자 공공기관도 그러하다. 그런데 유독 향군에 대해서만 통제 일변도의 규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체계가 있을 수 없는 감독관청의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보훈처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통제와 직권 남용적 입법 추진을 단호히 배척하고 입법폐기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홍보실>

향군 정체성 맞는 안보활동 전개

제72차 정기전국총회 성료, 국가안보 제2보루 다짐



제72차 정기전국총회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 김진호 회장

향군은 4월16일 서울대방동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대의원,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차 정기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향군본부를 서초동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전국총회에서 향군은 정체성에 맞는 일관된 대국민 안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신임 시·도회장과 지회장 등의 임원 변동사항과 2018년 주요 추진업무 등을 보고받고 2018회계년도 결산 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 본부 사무실 이전 추진 안, 2019년도 직영사업 계획 및 예산 안, 정관 변경 안, 임원 개선 안 등을 의결했다.

김진호 회장은 총회 기념식에서 대회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로까지 관심사로 표명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현재의 국내 안보 시국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향군 정체성에 맞는 일관된 대국민 안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보상황을 언급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포기하고 40배 이상의 경제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대남전략의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력관계 추진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약화 등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과 관련,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군 주요부대 현장을 방문하여 제기된 일부 문제점 등에 대해 현지 지휘관들과 기술토의를 해본 결과 지적된 문제는 이미 보완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군이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단체인 우리 향군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향군의 정체성에 맞는 안보활동을 위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향군대회장이 수여됐으며, 워싱턴D.C 추모의벽 성금모금에 적극 참여해준 월남전참전자회에는 향군회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됐다.

2019년 정기전국총회 포상자 명단

▶정부포상

개 인

국민훈장

김정규(분회 이사)

국민포장

심동섭(강원도 강릉시 향군회장) 김정철(서울 서대문구 향군회장) 장형기(본부 총무부장)

대통령표창

오상도(대구시 향군 고문) 이건영(강원도 삼척시 향군회장) 김영운(본부 국제협력부장) 임석영(본부 조직부장) 조규호(본부 노무차장) 서석만(전라북도 향군 사무처장) 이길수(경북 칠곡군 향군회장) 김진욱(충북 제천시 향군회장)

국무총리 표창

이월영(서울 송파구 향군 여성회장) 신상진(인천시 향군 행정관리부장) 이태순(강원도 향군 여성회장) 이수정(본부 인사운영과장) 박경선(본부 편집과장) 김갑중(본부 재무분석차장) 양유술(광주 전남 향군 안보부장) 김광우(경상북도 향군 조직부장) 유현숙(경남 울산 향군 여성회장) 김영숙(충청북도 향군 여성회장)

국가보훈처장 표창

정규재(대구 달성군 향군 사무국장) 조혜정(강원도 삼척시 향군 사무과장) 공승갑(본부 문서관리담당관) 양정아(본부 회원관리과장) 오은성(본부 비서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경북 경산시 향군 사무국장) 정찬서(경남 울산 향군 감사) 한정우(경북 상주시 향군 사무국장) 이한섭(경남 울산 향군 행정부장) 이완영(충청북도 향군 이사) 이태산(충청북도 향군 이사) 김정원(인천시 향군 조직과장) 이상길(충남 서산시 향군 사무국장) 천정웅(경북 영덕군 향군 부회장) 최미양(전라북도 향군 여성회 이사) 이주현(서울 성북구 향군 사무국장)

단 체

대통령 표창

전북 고창군 향군, 충남 당진시 향군, 경기 하남시 향군, 경남·울산 향군 여성회, 서울 강서구 향군, 전남 구례군 향군

국무총리 표창

강원도 향군, 전남 영암군 향군, 충남 금산군 향군, 서울 서대문구 향군, 인천 계양구 향군

국가보훈처장 표창

경기도 평택시 향군, 경북 구미시 향군, 경북 경주시 향군, 미 북서부 지회

▶본회장 표창

향군대회장 :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

추모의 벽 성금 모금 우수회 : 경남·울산 향군, 광주·전남 향군

우수안보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향군

우수해외지회 : 미 중서부지회

감사유공최우수단체 :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감사유공우수단체 : 경상북도 향군

우수 여성회 : 서울시 향군 여성회

상조회최우수지회 : 전라북도 향군

감사장 : 월남참전자회

라모스 미 워싱턴 주 보훈부 장관 향군 방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 감사 뜻 전달

알바라도 라모스(Loredes E. ‘Alfie’ Alvarado-Ramos) 미국 워싱턴 주 보훈부 장관이 4월23일 오후 향군을 방문하여 미국의 한국전참전 용사들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향군은 라모스 협회장 일행을 맞아 향군 일반현황과 향군의 공공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성금모금 활동 등을 설명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만나본 적도 없는 나라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179만명이 참전하여 3만 7천여명이 목숨 바쳐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었다”며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고 거듭 감사

와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따라서 향군은 “이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후손과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미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세워질 ‘추모의 벽’ 성금을 모금했다”며, 오는 6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모스 장관은 향군의 이 같은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역사적으로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루어 왔지만 한국처럼 고마움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모스 장관은 4월20일 방한하여 국립묘지와 UN 묘지를 참배하고 보훈처 및 향군을 방문한 다음 24일 출국했다.



영연방 참전용사, 임진강·가평 전투 68주년 행사 참석

자유수호 위해 산화한 전우 기려, 가평고 등 자매학교에 장학금



‘임진강·가평지구 전투 68주년 상가행사’가 4월23일과 26일 거행됐다.

경기 가평 영연방 참전 기념비 앞에서 거행된 가평지구 전투 기념행사와 경기 파주 영국 전적비 추모공원에서 개최된 임진강전투 기념행사에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영연방 5개국 참전용사와 가족 66명, 각국 대사 등 450여명이 참석해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는 68년 전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고국을 떠나 목숨 걸고 싸웠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한 한 참전용사 중에는 마이클 필립 우드리(88) 씨를 비

롯해 최연소 유엔참전용사이자 유엔기념공원 안장자인 고 제임스 패트릭 다운트 상병의 조카 내외, 캐나다관 ‘태극기 휘날리며’의 주인공들로 알려진 한국 전 참전용사 조지프 허시와 아치발드 허시 형제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한편 영연방 참전 노병들은 자신들의 연금을 모아 1976년부터 자매학교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세무고, 예림 디자인고, 가평 중·고등학교, 가평 북중학교 등 학생 6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영연방 국가에서는 9만7천여명이 가평지구 및 임진강 전투 등에 참전해 10배가 넘는 중국군의 공격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1천858명이 전사했다.

가평지구 전투는 1951년 4월 춘계 공세 때 영연방 제27여단

이 중국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던 방어전이다. 이 전투로 중국군의 유엔군 전선 분할 기도가 좌절되고, 서울~춘천 간 주보급로가 확보됐다.

당시 영연방 제27여단 소속이었던 호주 3대대는 지금도 『가평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매년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해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또한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캐나다 경비병 2대대는 부대 건물에 가평지구 전투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새겨 기념하고 있으며, 위니펙에 ‘가평로’가 존재하는 등 캐나다도 가평지구 전투를 잊지 않고 있다.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 제29여단이 중국군 3개 사단을 사흘간 저지시켜 군단 주력부대가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전투다.

‘추모의 벽’ 건립 성금 기탁자 명단

(2019. 4. 1 ~ 2019. 4. 25)

□ 총 모금액 : 548,352,838원

□ 본부 및 각급회

문철상이사 1,000,000원, 태안향군인회 900,000원, 태안 이진성 100,000원, 남면 정영송 100,000원, 남면 김종성 100,000원, 소원향군인회 180,000원, 태안 김대락 50,000원, 태안 김정근 30,000원, 거제시능포동 100,000원, 영월군재향군인회 300,000원, 산청군 박정호 200,000원, 부산재향군인회 1,150,500원, 경남마산 70,000원, 흥천군재향군인회 500,000원, 미중남부지회(휴스턴) 5,613,416원

□ 참전친목단체

월남전참전자회 1,550,000원, 해병대전우회 3,230,000원, 성우회 3,000,000원

□ 기타

ROTC 2 2,000,000원, 미래디엠아이 2,000,000원, 대원종합관리(주) 1,000,000원, 이진영 10,000원, 성준혁 120,000원, 이연찬 30,000원, 김수용 장군 150,000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3일 공포, 시행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월 2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의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중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유족연금·사망보

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문의 : 국방부(www.mnd.go.kr) 군인연금 누리집(www.mps.mil.kr)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묘역
KOREAN VETERANS ASSOCIATION MEMORIAL PARK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Veteran's Sacrifice and Dedication to our Nation.

분양상담
(분당추모공원'휴')
031-762-3000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휴'와 함께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유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안장대상

- 향군임직원 및 향군회원 · 해외교포 중 국내 안장 희망자
- 안보·친목단체 회원 · 재향군인회 상조회원

이용특전

- 분양가 할인 제공 · 안장 및 의전행사 지원

▲ 야외봉안당 3,000기

▲ 수목장지(소나무) 89주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재향군인회상조회 1577-0720 / 02-2218-7141

홈페이지 www.korvafamily.com

예비역 단체 임원, 육군 초청으로 최전방 경계시스템 체험

9·19 군사 합의 후 안보 공백 우려 불식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와 영관장교 연합회, 부사관 총연합회의 임원진 30여 명이 4월18일 육군 제1사단 초청으로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 첨단 감시 카메라와 광망 센서로 이뤄진 과학화경계시스템 체험 기회를 가졌다.

친목단체 임원들은 이날 경계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남북한계선을 도보로 답사하며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살펴봤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DMZ 남북한계선 철책에 광망 센서를 설치하고 중거리와 근거리 카메라, TOD 열상장비, 레이더 등으로 4중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계시스템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으로 DMZ에 도입되기 시작됐으며 9·19 남북 공동 군사합의 이전에 DMZ와 강안 경계 근무에 설치 완료됐다.

철책의 광망 센서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감지되면 경보가 울리며 카메라는 경보가 울린 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제실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근무자는 경계초소의 초동조치 부대를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19 남북 공동 군사합의 이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육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 대민지원 총력

서육 참모총장, 피해현장 찾아 복구 지원 장병 격려



서육 육군참모총장이 4월17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피해현장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를 지원 중인 장병들을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서 총장은 “국가적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 감시자산과 가용장비를 운용해 산불진화 작전을 펼치고 대민지원에도 앞장서는 장병 여러분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영웅”이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자”고 격려했다.

한편 육군 8군단이 4월11일 오전부터 토성면을 비롯한 고성군의 5개 면과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일대에 장병 200여 명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섰다.

장병들은 화재 잔해물을 수거하

고 소실된 민가가 철거되기 전 집기류 등을 운반했다. 또한 이재민에게 나눠줄 구호물품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을 펼쳤다.

현장에서 대민지원을 지휘한 22사단 최의록 대대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민 피해복구 지원 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산불 피해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다행이라며 피해복구 지원 작전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자랑스러운 부대원들과 함께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군단은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정비팀과 의료지원팀 등의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행정관서 요청 시 즉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대 인근 16개 마을 300여 명 주민 대상

으로 군·관 합동 대민의료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의료지원은 16전비가 2013년부터 6년째 안동의료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이어온 합동 의료지원으로 이날 16전비 군의관, 간호사 및 의료 담당자들은 건강 상담을 비롯해 한방과·안과·치과·통증의학과 분야의 진료와 처방을 펼쳤다.

이번 지원을 주관한 16전비 감찰안전실 황재득 대령(진)은 “앞으로도 대민의료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며 꾸준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공군16전비, 진보공단 등과 의료지원



공군16전비비행단(16전비)은 지난 3월22일 경북 예천군 유천면 북

지회관에서 부대 인근 16개 마을에 거주하는 300여 명의 주민을 대상

해군, 해양환경 정화활동

세계 물의 날 맞아 해양폐기물 수거

해군이 제2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중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해군 1함대 장병 및 군무원 100여 명은 지난 3월22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북평교 아래 하천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와 함께 3특전대대 장병들은 고속단정과 잠수함 장비를 활용해 동해군항 인근 바다에서 주민들이 직접 수거하기 어려운 페그물, 페어망 등 수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웠다.

3함대 장병들도 같은 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잘 알려진 흑산도 배낭기미해변에서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 불철 관광객을 맞이할 해상국립공원을 아름답게 단장했다.

인천해양방어사령부 장병 30여 명 역시 같은 날 인천시 승기천 일대에서 하천가꾸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해군사관학교 장병·군무원 80여 명도 지난 3월21일 옥포만 일대에서 해안·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한편 해안구조대와 함께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페어망과 쓰레기 100kg을 수거했다.

해병대 창설 70주년, 호국충성 소임 다할 것



해병대가 4월15일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이날 해병대 사령부와 서북도서, 김포·강화, 포항, 제주도 등 전 부대에서 창설기념행사를 하고 의의를 되새겼다.

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됐으며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연평도 포격전, 독립성 강화 및 지휘구조 개편을 거치면서 2만 9000여 병력의 국가전략기동부대

로 성장했다.

이승도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장병 모두가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의 일체감과 탄탄한 팀워크로 ‘공지기동 해병대’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군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의 첨병 / 경남 통영시 향군

재정자립 위한 향군지원 조례 개정 추진

지난해 정회원 확충 목표 100% 달성 ... 회세 확장, 위상 강화

이 총무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호국의 고장 통영시. 이곳 통영시에서 안보역군의 선봉으로 대국민 안보계도와 호국선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통영시 향군은 안정된 회 운영으로 지역 안보·보훈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7년 보조금과 자체자금 등 13억원의 예산으로 지상5층의 향군회관을 마련한 통영시회는 현재 월59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80년 총무시와 통합하면서 구 총무시 회관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본회에 예치, 이에 대한 이자 월 100만원을 본회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영시로부터 사업비로 연 1,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부족하지만 회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군지원 근거, 조례 개정 운영비 확보, 재정 안정화

통영시 향군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회 재정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통영시 향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시 보조금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관호 통영시 향군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시

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및 시의회와 꾸준히 교류하며 향군지원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존 조례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을 통해 인건비 및 회 운영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미 경상남도 지자체 중 김해시와 함안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향군에 지원하고 있고 산청, 거창, 남해, 고성, 함양, 울산 울주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개정을 앞두고 여건에 맞춰 향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어 통영시의 조례 개정 노력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향군의 근간인 정회원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군의 존립기반이 되고 회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회원 확보는 회세 확장과 위상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다.

통영시 향군은 지난해 친목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정회원 확보 목표 100% 성과를 얻



었다. 향구인 지역특성 상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 해군 전우회 등과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한 결과다.

조직 근간, 정회원 확보 친목단체와 유대강화

이에 더해 통영시는 읍 면 동 회장들을 독려하여 지역 예비군 중대장들과의 유대강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결국 신규자원은 이들 예비군 중대장들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도시집중현상과 인구감소로 신규자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이관호 회장의 리더십과 회를 이끌고 있는 사무국장 등 임직원들의 숨은 노력들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 향군은 재정자립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각급회에 주어지고 있다.

회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향군지원 조례 개정과 정회원 확충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회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통영시 향군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예비군 중대장들과 정회원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통영시 향군



VFW 텍사스지회 추모의 벽 건립에 1만불 쾌척

미국해외참전협회(VFW, Veterans of Foreign Wars) 텍사스지회(회장 Inge A. Conley)가 워싱턴D.C 6·25전쟁 미군전사자 추모비 건립에 보태 달라며 향군 미 중남부지회(휴스턴·회장 김진석)를 통해 본회에 1만불을 쾌척하고 향후에도 2년간 1만불씩 성금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울산 향군, 극동유탄유·진우산업과 MOU

회 재정 안정과 회원복지 증진에 기여



경남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4월4일 향군회관에서 (주)극동유탄유(대표 이명기)·(주)진우산업(대표 정구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경남 울산 향군은 회 재정 안정과 취업 등 회원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도수 회장은 "오늘 업무 협약식은 지역사회와 향군 발전을 위

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차후 봉사 및 안보활동 등 향군활동에 있어 양측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명기 (주)극동유탄유 대표는 "오늘 업무 협약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향군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폐단 극복, 영·호남 화합에 앞장

전주시 향군, 포항시 향군 초청 영호남 화합행사



전주시 향군(회장 채창수)은 4월23일, 24일 포항시 향군회원 50여명을 초청, 풍남동소재 르윈호텔에서 영·호남 화합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이종엽 포항시 향군회장과 박해자 여성회장에게 동서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장 감사패와 표창을 받았으며 전주시와 포항시 특산품을 상호 교환하고 친교시간을 가졌다.

채창수 전주시 향군회장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영·호남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향군, 안보결의대회

울산 울주군 향군(회장 임치만)은 4월23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안보결의 및 한마음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금정구 향군, 금정농업협동조합과 후원 협약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 매년 300만원 지원받아

부산 금정구 향군(회장 권혁률)이 4월17일 금정농업 협동조합(조합장 송영조)과 향군이 운영하는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의 2019년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맺음으로써 금정농업협동조합은 매년 300만원의 후원금을 어린이 나라사랑교육관에 지원하게 된다. 후원금액은 교육에 필요한 기

자재와 교보재 구입 및 교육관 시설개선에 사용된다.

부산 금정구 향군은 2016년 4월부터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관장 강승식·예해군대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5대 상징물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약1,500명의 부산 관내 어린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후원금을 전달받고 있는 강승식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장

진주 가호동·이현동·사봉면 향군 창설

경남 진주시 향군(회장 최신용)은 4월24일 향군회관에서 가호동, 이현동, 사봉면 향군 창설행사를 가졌다.

이날 가호동회장에 이규엽, 이현동 회장에 강덕원, 사봉면회장에 정근식씨가 각각 취임해 지역의 향군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신용 진주시회장은 “국내의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향군이 힘을 뭉쳐 나라 발전과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안보 역군으로 읍·면·동회 세 곳이 창설되었으니 강한 지역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인천시 향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공단 관리 프로그램 상호 공유, 안보 현장 견학 활성화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과 강화군 향군(회장 하재동)은 4월 1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준)과 안보현장 견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시 향군은 청소년·전

후세대 안보견학, 나라 사랑 현충 시설 탐방 등 연간 1만여 명의 안보견학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강화평화전망대, 역사·자연사박물관, 전쟁박물관 등을 활용한 안보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타시·도 향군과도 협의해 강화군의 안보현장 견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찾아 안보경각심 고취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은 4월17일 향군 임직원 및 가족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아 안보의식을 고

전라북도 향군 안보의지 재확인

취했다. 이번 독립기념관 방문은 우리민족의 형성 및 발달과정, 근현대사 민족수난의 역사, 세계 10위의 교역국 이끈 선열에 대한 감사 등 국가안보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대진 회장은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운 순간이 온다”며 “이 땅에 일제 강점기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군이 숭선수범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국민계도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향군, 6.25참전유공자 위로 행사

경남 거제시 향군(회장 이주연)은 4월23일 보훈회관 앞에서 6.25 참전 유공자 및 가족 200여분을 모시고 보훈감사 위안 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의 오찬 지원과 함께 연예인들의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들을 감동시켰다.



최종경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거제시지회 회장은 “거제시에는 국가가 부를 때 망설임 없이 달려 나가 나라를 지킨 1,000명의 6.25참전 유공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해 200여분만이 생존해 안타깝지만 그래

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위로행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향군 여성회는 매년 생필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을 보훈단체에 꾸준히 기부, 보훈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동두천시 향군 양순종 이사, 나눔 실천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경기도 동두천시 향군 양순종 이사가 4월5일 지역 불우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훈훈함을 전달했다.

양 이사는 최근 동두천시 향군 이사로 위촉되면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나눔을 실천하지는 취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 3명을 자원봉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각 50만원씩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순종 이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3월21일 ~ 4월20일)

서울시 향군



성북구회 : 4월15일 강원도 산불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성북구청에 전달.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3월28일 동구 봉무공원 일대에서 거행된 2019년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 참여. 4월5일 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개최된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수성구회 : 4월3일 자매결연학교인 대구 일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군 특성화 과정 선서식에 참석, 학생들에게 건강을 달아주며 격려. 여성회는 4월9일 범물 실버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활동 실시.



서구회 : 4월1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동구회 : 여성회는 4월8일 제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 봉사활동 실시. 4월9일 팔공노인복지회관에서 급식봉사활동.

달성군회 : 3월24일 천안독립기념관 및 유관순열사기념관 등 충청지역 전적지 답사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4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남준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시통합방위협의 회 위원, 군 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4월12 인천제물포고등학교 성덕당에서 개최된 인천송도고, 연수여고, 제물포고 Jr.(주니어) ROTC 합동 승급 및 입단식 행사 참석.



동구회 : 4월9일 향군회관과 동구청 일대에서 봄맞이 대청소 전개. 4월20일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독립기념관 견학.



남동구회 : 3월31일 동학혁명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학혁명전투 전적지 순례활동 실시. 4월7일부터 11일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 안보전적지 탐방 활동. 여성회는 3월29일 만수6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짜장 차 봉사활동 실시.

부평구회 : 4월10일, 16일 부평구청 사거리 일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4월3일 벨라루체 웨딩홀에서 참전 유공자와 불우회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랑의 일일찻집 행사 실시.

계양구회 : 4월5일 계양구청 주관 식목행사에 참여, 계양산 중턱에 편백나무 등 나무 300여 주 식재.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4월2일, 3일 목포 근대역사박물관, 흥도 깃대봉 산행, 흑산도 정약전 선생 유적지 견학 등 호국안보 해상순례 실시.

성남시회 : 3월29일 제천 사랑산에서 환경정화활동을 갖고 충주 중앙탐 등 안보 유적지 탐방. 4월11일, 12일까지 변산반도 일대에서 나라지킴이 리더십 교육 및 안보탐방 행사 실시.

과천시회 : 여성회는 4월8일 군산의 역사 문화유적지와 고군산도 일대에서 호국안보 연수행사 실시.



평택시회 : 4월12, 13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및 통영 제승당 등 안보현장을 방문, 안보의식 고취.

강원도 향군



속초시회 : 4월11일 속초 종합운동장을 찾아 속초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구호활동 펼쳐. 4월19일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김철수 속초시장에 전달.



홍천군회 : 3월26일 홍천읍 일대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4월 18일 향군회관에서 홍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충청북도 향군



제천시회 : 4월17일 불우이웃 나눔인 자장면 무료배식 봉사 참여.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서구회 : 여성회는 4월2일 탄방동

공원 주변에서 봄맞이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도회 : 4월18일, 19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을지 전망대와 제4땅굴을,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동해안 최북단 군 관측소인 금강산전망대 견학, 안보의식 고취.



대전 대덕구회 : 여성회는 4월7일 대청공원에서 개최된 대청호 대덕 뮤직페스티벌 축제현장에서 급수봉사 활동.

보령시회 : 4월4일 식목일과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이하여 오서산에서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서산시회 : 4월2일 아산시 소재 현충사와 천안 소재 독립기념관을 방문, 안보현장 견학 활동 실시.



공주시회 : 여성회는 3월26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 전개.



천안시회 : 4월5일 제7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무궁화동산에서 식목행사를 실시.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4월3일 전주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3월28일 전주대대 및 완산 및 덕진 지역대장 등과 중화산동 소재 이증본에서

간담회 가져. 3월27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의 햇빛' 전국 릴레이 행사 참여. 여성회는 4월3일 덕진노인복지관에서 독거 노인 등에게 배식봉사활동.



정읍시회 : 4월5일 강화도 평화 전망대와 역사박물관, 갑곶돈대 등 강화도 일대 안보 현장견학 실시. 4월9일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55회 월남전 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참석.



군산시회 : 3월21일 군산 은과호수공원 일대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진안군회 : 4월3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식 가져.

김제시회 : 4월4일 만경 능계 수변공원내 만경 3.1독립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5회 만경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여성회는 4월3일 덕암고등학교 앞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고창군회 : 4월2일 전문이동봉사활동에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실시. 4월12일 고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고창고등학교 6.25참전 유공자 명비 제막식 참석.

익산시회 : 3월29일 향군회관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대대와 업무 협약 체결. 한완수 회장은 4월5일 익산시 창인동에 갤러리 전시관을 개관, 소장한 고미술품 및 골동품 전시하여 시민문화공간 조성.

남원시회 : 여성회는 4월1일 인월 취암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 봉사활동 실시.

무주군회 : 4월1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지역 제4대대장과 예비군 중대장을 맞아 상호 협력방안 논의.

완주군회 : 여성회는 4월1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실시.

순창군회 : 여성회는 4월19일 제 57회 군민의 날을 맞아 거행된 주부 사이클 대회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봉사활동.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서구회 : 3월21일 광천터미널 일대에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 캠페인 활동 전개.

광주 북구회 : 3월28일 두암동 소재 천사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 펼쳐.

나주시회 : 3월31일 경현동 소재 유관단체 합동 한수제 정화활동 참석하여 지역의 공익활동 펼쳐. 4월4일 김천일 대대를 방문, 위문활동.

광양시회 : 여성회는 3월30일 동·서천 남만길 걷기행사 봉사활동 실시. 4월1일 광양 4.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재현 행사 참여.



보성군회 : 3월26일, 27일 독립기념관과 청와대를 방문, 올바른 국가관과 호국의지를 다져.

영암군회 : 여성회는 4월4일부터 7일까지 왕인문화 축제기간 중 '향군 무료차집' 운영, 봉사활동 실시.

함평군회 : 4월2일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영광군회 : 3월26일 원광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이 미용 봉사활동 실시.

강진군회 : 4월4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남지역 내 최최이자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던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여성회는 4월8일 영주경찰서에 군복무중인 의경들을 위문하고 격려. 4월2일 육군 3260부대 3대대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 격려.

고령군 대가야읍회 : 3월30일 대가야체험축제를 앞두고 금산제 일대 환경정화활동 실시.



청송군회 : 4월2일, 3일 경기도 평택, 과주 일원에서 안보연수회 및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문경시회 : 4월4일 문경관광사격장에서 거행된 2019년도 6.25전자사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영천시회 : 3월28일 영천시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여 화산면 암기리 산 100

번지 일대에 편백나무 식수.

상주시회 : 여성회는 3월28일 마리앙스에서 개최된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 봉사활동.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3월26일 향군회관에서 엘더 플라워 대표를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 3명을 초청, 향군 소개 및 홍보활동 실시.



진주시회 : 4월2일 중안동 소재 장덕한방병원과 상호 협력지정협약 체결. 4월8일 참사랑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어르신 목욕, 배식,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



김해시회 : 여성회는 4월8일 무공수훈자비, 6.25 및 베트남 참전자 비를 찾아 환경정화 활동 실시. 4월5일 신어전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하동군회 : 4월11일, 12일 전남 강진, 해남 땅끝마을, 완도군 보길도, 순천낙안읍성 앞 3.1운동기념탑 등을 참배하는 임직원 안보견학 실시. 여성회는 4월2일 관내 참전유공자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 실시. 3월26일 육군8962부대 5대대 장병들과 함께 거제 칠천량 해전공원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일대 안보현장견학.

합천군회 : 4월7일 합천공설운동장에서 합천팀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참가 및 자연보호활동. 여성회는 4월15일 가야면 소재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실시한 봄꽃 식재행사 봉사활동 실시.

합천군 덕곡면회 : 3월28일 칠곡 호국평화 기념관 및 울산 대왕암 일대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산청군회 : 4월5일 고려요양병원을 찾아 임원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활동 전개. 3월27일진해 잠수함 부대에서 안보체험 활동 실시.



함양군회 : 여성회는 4월3일 함양군 여성회 봉사실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전달.

고성군회 : 4월4일 참전용사를 위한 사랑과 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고성읍 참전용사 진용섭, 선인주씨 댁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및 주거환경정화활동 전개.

양산시회 : 3월25일 양산시청을 방문, 김일권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활동 현안 논의.

남해군회 : 4월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추모행사를 갖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려. 4월18일 여수 6·25 참전학도병 기념비 참배 및 산사 순례.

창녕군회 : 청년단은 3월24일 통영 세병관, 충렬사 일대에서 안보현장 견학 행사를 갖고 단합 도모. 4월18일 거제 포로수용소 및 옥포대첩 전적지 등 안보전적지 답사 행사.

창녕군 대지면회 : 4월6일 경기도 파주 제3땅굴을 방문 안보현장 체험활동 실시.

의령군 의령읍회 : 4월14일 봉수산 호국공원과 백산 안희제 선생 추모비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 실시.

거제시회 : 4월17일, 18일 산불피해를 입은 고성군 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을 방문, 안보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하고 의류, 타올 등 구호물품 전달.

창원 진해구회 : 4월3일 제22회 웅동 4.3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창원 의창 성산구회 : 4월18일 성산아트홀비페에서 정성미 여성회장 취임식.

창원 성산구 사파동회 : 4월6일 창원시민의 휴식처인 비음산 등산로에서 자연정화 활동 실시.

창원 성산구 웅남동회 : 4월14일 양곡 초등학교에서 동민 건강증진과 소통·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제13회 웅남동민 건강건강기대회' 개최.

창원 의창구 팔용동회 : 4월9일 창원 장애인급식소에서 급식봉사 활동.

창원 의창구 의창동회 : 4월16일 충남 예산 일대 안보답사 및 윤봉길의사 기념관 등 견학.

울산 동구회 : 4월5일 개미산일대 및 보훈회관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울산 남구회 : 3월30일, 31일 궁거랑 벚꽃축제 먹거리 부스 봉사활동 실시.

울산 중구회 : 3월22일 동천강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굴화수질 개선사업소에서 열린 제27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 표창 받아.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여성회는 4월16일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방문, 해안가 쓰레기 수거 활동.



서귀포시회 : 여성회는 4월13일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회 발전을 위한 단결과 친목 도모.

친목단체 활동

안보결의대회



6.25참전유공자회(회장 박희모)는 3월28일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거행했다.

병과창설 기념행사



공병전우회(회장 한봉희)는 3월26일 육군회관에서 제71주년 병과창설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지청천장군 62주기 추모제



광복군동지회(회장 이영수)는 4월17일 현충원 임정요인묘역에서 지청천장군 62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재향여군연합회(회장 이재순)는 4월10일 삼정호텔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자연보호활동



정보동우회 (회장 박상수)는 4월10일 서울대공원에서 회원들과 함께 자연보호활동을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5월9일 KW컨벤션 웨딩홀에서 정기총회, 5월24일 용문산전투전적비에서 제68주년 용문산대첩 전승기념 및 추모행사.
- ▲포병전우회 : 5월9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5월16일 1포병여단 방문.
- ▲매봉한석산참전전우회 : 5월10일 매봉한석산 전투 전적비에서 승전 68주년 기념행사.
- ▲갑종장교전우회 : 5월15일 향군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의, 5월27일 향군회의실에서 정기총회.
- ▲재향여군협의회 : 5월2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봉사활동.
- ▲성우회 : 5월23일 회 사무실에서 고문회의.
- ▲광복군동지회 : 5월30일 광복군무후선열묘역에서 추모제.
- ▲해군동지회 : 5월30일 해군호텔에서 정기총회.
- ▲특수임무유공자회 : 5월31일 특수임무전사자 추혼탑에서 제12회 합동위령제.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창립기념행사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3월29일 전쟁기념관에서 제16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갑종장교 호국영령 추모제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관)는 4월19일 육군보병학교에서 동춘상시상 및 갑종장교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다.

무공수훈자회 한·베트남 우호증진 활동 2018년도 보훈단체 최우수 사회공헌활동 선정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추진한 ‘한·베트남 우호증진 활동’이 2018년도 보훈단체 최우수 사회공헌활동에 선정됐다. 무공수훈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호치민 대학 등 4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베트남 현지 고엽제 환우와 후유증 2세 수용 시설에 학용품과 의류를 전달하는 등 한·베트남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현악 업소현황

전국 1,457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식당/음료

• 한성숯불갈비 (울산시 동구 옥류로 9)
052-236-3573 : 10%

기타

• 모두투어 놀푸른여행사 (경남 양산시 강변로 442)
010-2086-9977 : 3~5%

• 오토오아시스(아카데미점) (울산시 동구 방어진 486)
052-201-4244 : 10%

• 울산테마식물수목원 (울산시 동구 쇠괭길 33-1)
052-235-8585 : 50%

• 코바벤텐카(주)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40)
033-643-1022 : 3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대한병원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590)
1522-3266 : 10~2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인천마디병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04)
1644-8344 : 2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렉씨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양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아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랑프리안경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62)

032-426-9177 : 20~30%

•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
041-570-7753 : 20%

• 당진장례식장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041-354-4444 : 10~15%

• 두툼한공룡갈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82)
033-635-7383 : 10~2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051-320-2000 : 20%

• 안양장례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주)복의정부자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57-19)
031-878-100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천북로 153)
043-241-6464 : 10%

• 행복주단 (대전시 동구 중교로 119) 042-257-4084 : 20%(현금결제시)

여행정보

5월에 가볼만한 곳



약령시한방문화 축제

대구 약령시한방문화 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5월2일부터 6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51-1 일대에서 열린다.

향긋한 약초 내음과 더불어 현대사회 도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전통 한의약과 약초로 해소시키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한약 관련 행사가 어우러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한방문화의 진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한의약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053-253-4729>



속제거리극 축제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시 곳곳에서 그 열다섯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에 시작해 안산에서 매년 5월 개최되는 축제로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내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다.

<031-481-0530>

담양 대나무축제

담양대나무축제가 5월1일부터 6일까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으로 119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담양대나무축제는 대심는날(죽취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대나



대나무축제



논개제 2019

무와 선비정신 문화를 테마로 대나무 테마숲인 '죽녹원'과 영산강 상류의 청정한 '관방천'을 무대로 개최된다.

축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소재로 효용성과 가치, 지역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친환경 녹색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대나무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 친구 연인 가족 등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기틀을 더욱더 다지는 한편 대나무 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특산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소 마케팅을 통한 '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61-380-3150~3152>

진주 논개제 2019

진주 논개제는 매년 5월 넷째 주 금요일 3일간에 걸쳐서 호국충절의 성지 진주성에서 개최된다. 진주의 뜻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지역의 훌륭한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입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 관, 군의 충절과 진주정신을 포괄하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전통예술축제를 창제하기로 하고 진주 논개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1868년 당시 진주 목사 정현석이 창제한 것으로서 제향에 약, 가, 무가 포함되고 여성들만이 제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제례인 의암별제를 서막으로 진주오광대를 비롯한 민속예술과 진주기생들이 남긴 교방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와 여성을 테마로 한 축제다.

<055-749-8589>

전우여! 어디에 ...

• 태권도 조교였던 이영수씨가 1976년~79년도 76연대 8중대 전우 김기모, 조용춘, 지춘길, 전일승, 최영석씨 등을 찾습니다.

<이영수 010-7735-2828>

• 우영식씨가 1985년 당시 DMZ 세계청소 지뢰작업, 수색로 개척, 미확인 지뢰지대 개척 등 지뢰 작업때마다 함께 해 주고 위로해 주던 12사단 수색대 신영순 대대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영식 010-2920-6313>

• 김부종씨가 영주단말에 같이 근무했던 육군통신학교 소년병 7~8기 출신 하사 전문선씨를 찾고 있습니다.

<김부종 010-7472-7776>

• 한상엽씨가 1973년 입대, 76년 제대한 6사단 통신 중대 단말 소대 김진원, 김형돈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상엽 010-5229-8946>

• 문상구씨가 1사단 공병대대 3중대 3소대에서 근무했던 박영규를 찾습니다. 고향은 전북 군산이고 52년생쯤 기억됩니다.

<문상구 010-3616-3267번>

향군장학기금

※ 기간 : '19.3월 23일 ~ 4월 22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120)
• 영관장교연합회 사무총장 김태문 1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6)
• 일반회원 (취대장농축 오승훈 1(34)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4)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2(32)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26)

▶ 정기 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5)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5)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비타민D 결핍 환자 증가,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면역력 강화해야

비타민D는 지용성비타민의 한 종류로서 칼슘대사를 조절하여 체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를 강화하며 세포의 성장과 근력발달, 면역기능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족 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일부암 등의 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과 중장년층에 많아

비타민D 결핍은 여성이 남성보다 3.7배 이상 많다. 여성의 경우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일상화되어 햇빛에 의한 비타민D 생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비타민D 결핍이 더 흔히 나타

날 수 있다. 아울러 40~60대 중장년층도 결핍환자가 많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의 노화로 인하여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서 비타민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음식에 의한 비타민 D 섭취가 줄어들게 되어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아진다.

겨울철에 늘어나는 경향

또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갈수록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겨울철에 비타민D 결핍이 다른 계절보다 더 급증하는 이유는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주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비타민 D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외선이 지표에 거의 도달하

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체내 비타민D가 더욱 부족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비타민D의 보충이 필요하다.

비타민D 결핍 방치 시 문제점

장기적으로 비타민D가 결핍될 경우 골밀도 감소되는 골다공증, 골절 증가, 근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흔하지는 않으나 심한 경우 성인에서는 골연화증, 소아에서는 구루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좀 더 밝혀져야 하나, 암의 위험이 증가되거나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질환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2회 대학생 휴전선 답사 국토대장정 실시

6박7일간 155마일 휴전선 횡단 · 전적지 답사 ... 병영체험도

향군은 오는 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 '2019년 휴전선 답사 국토대장정'에 참가할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로 제12회째를 맞는 '향군 대학생 휴전선 답사 국토대장정'은 오는 6월25일 6·25정부 행사 참석 후 출정식과 함께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6박7일간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을 가로지르는 휴전선 155마일을 횡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적지를 답사하고 군부대 견학 및 병영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전국의 대학생(휴학생, 탈북자 대학생 포함) 및 해외 유학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모든 답사 대원에게 모자, 티셔츠, 배낭 등 참가기념품을 지급한다.

대원 모집은 5월31일까지 인터넷(<http://cafe.daum.net/korva-mc>)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6월 5일 상시 신청 인터넷을 통해 고지한다.

향군은 젊은 세대의 호국정신 함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대학생 방학 기간을 이용, 답사단을 모집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기간 중 정부 주관 6·25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현충시설, 충훈탑, 전적비 참배를 통해 미래 안보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보관과 역사관 정립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도 방문, 병영체험 등을 통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훈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최전방 GP 철거 현장까지 답사해 참가 대학생들에게는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 상 : 국내외 남/여 대학생 80명	주 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참 가 비 : 전액 주최측 지원	후 원 : 국가보훈처·국방홍보원
답사기간 : 2019년 6월 25일~ 7월 1일(6박 7일)	문 의 : 02) 416-6456, 향군 호국안보국
접수방법 : 인터넷(http://cafe.daum.net/korva-mc)	

